



미 증시, 유가 및 미 국채금리 안정에 기술적 반등

미국 증시 리뷰

22 일(월) 미국 증시는 M7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신규재료 부재, 이란-이스라엘 확전 우려 완화, 유가 및 미국채금리 하락 등에 저가매수세 유입되며 기술적 반등. (다우 +0.67%, S&P500 +0.87%, 나스닥 +1.11%). 전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IT(+1.3%), 금융(+1.2%), 유틸리티(+1%) 상승폭이 가장 컸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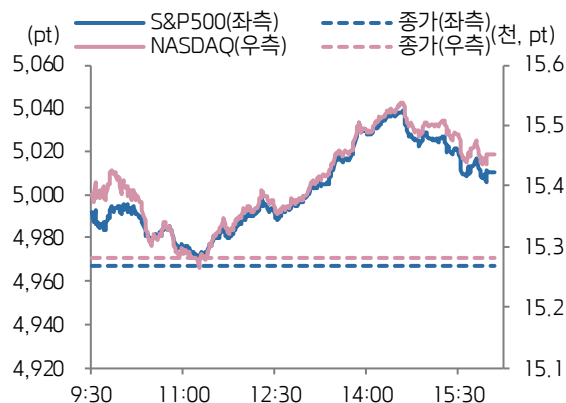
3 월 시카고 연은 전미활동지수는 0.15(예상 0.07, 전월 0.09) 로 두달 연속 (+) 기록하며 확장세 유지. 생산과 소득, 고용과 실업, 소비와 주택, 판매 등 크게 네 가지 부문의 85 개 경제지표를 가중 평균하여 산출. 집계측은 네 가지 영역 중 두 가지가 전월 대비 상승세를 보였다고 언급.

미국 하원이 기존 제재 대상 이란산 석유를 고의로 취급하는 외국의 정유소나 항구, 선박 등을 제재하는 법안 가결. 이란산 원유를 취급하다 적발되는 경우 선박은 2 년간 미국 내 항구로의 입항이 금지. 앞서 중국만 대상으로 포함했던 비슷한 내용의 세컨더리 제재(제 3 자 제재)를 모든 외국 거래 관계자로 확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을 지원하는 총 950 억 달러(약 131 조원) 규모의 안보 패키지 예산안도 함께 통과.

이번주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실적 시즌에서 S&P500 시총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약 180 개 기업이 실적 발표 예정. 빅테크 실적은 1 년전보다 38% 증가할 것으로 예상. 블룸버그에 따르면 AI 에 대한 투자 모멘텀의 둔화가 가장 큰 위험으로 지적되는 가운데, 엔비디아가 주가를 회복하려면 24 일, 25 일에 실적을 발표하는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등 주요 빅테크가 AI 하드웨어에 투자를 늘리고 있다는 신호가 필요하다고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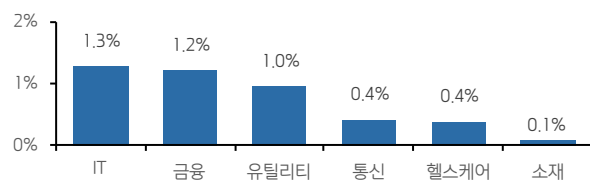
지난 주말 테슬라는 판매 부진과 재고 과잉으로 미국과 중국, 유럽 전역에서 전체 모델의 가격을 인하, 전기차 가격 경쟁 심화 전망. 중국에서는 테슬라가 일부 개조된 모델 3 의 가격을 기존 245,900 위안에서 231,900 위안(4,431 만원)으로, 모델 Y 는 263,900 위안에서 249,900 위안(4,755 만원)으로 인하. 미국에서 모델 Y 의 가장 저렴한 버전은 42,990 달러(5,932 만원)으로 , 모델 Y 의 다른 두 가지 버전과 고급형 모델 S 와 모델 X 도 각각 2,000 달러씩 인하. 이와 함께 미국에서 완전자율주행(FSD) 소프트웨어 가격도 12,000 달러에서 8,000 달러로 인하.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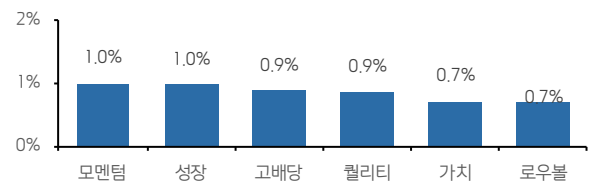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코스피	2,629.44	+1.45%	USD/KRW	1,379.40	-0.21%
코스피 200	356.89	+1.22%	달러 지수	106.08	-0.07%
코스닥	845.82	+0.46%	EUR/USD	1.07	-0.01%
코스닥 150	1,400.85	+0.78%	USD/CNH	7.25	+0%
S&P500	5,010.60	+0.87%	USD/JPY	154.81	-0.03%
NASDAQ	15,451.31	+1.11%	채권시장		
다우	38,239.98	+0.67%	국고채 3년	3.510	+3.3bp
VIX	16.94	-9.46%	국고채 10년	3.652	+6.2bp
러셀 2000	1,967.47	+1.02%	미국 국채 2년	4.971	-1.5bp
필라. 반도체	4,381.92	+1.74%	미국 국채 10년	4.609	-1.2bp
다우 운송	15,224.40	+0.93%	미국 국채 30년	4.713	+0.2bp
유럽, ETFs			원자재 시장		
Eurostoxx50	4,936.85	+0.38%	WTI	82.05	+0.18%
MSCI 전세계 지수	749.29	+0.81%	브렌트유	87	-0.33%
MSCI DM 지수	3,282.09	+0.81%	금	2344.3	-0.09%
MSCI EM 지수	1,011.84	+0.76%	은	27.26	+0.06%
MSCI 한국 ETF	62.68	+2.22%	구리	448.05	+0.1%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2.22%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1.08%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47%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78.2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엔비디아 등 미국 AI 반등으로 인한 국내 반도체 업종 수급 호전 가능성 2. 장중 미국 M7 실적 이벤트를 둘러싼 경계심리 유입 여부 3. 외국인 수급 향방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전일 미국 엔비디아(+4.4%) 등 나스닥(+1.1%)을 중심으로 미국 증시가 반등에 성공하긴 했으나, 아직까지는 추세 상승으로 복귀를 자신하기에 고려해야할 변수들이 남아있는 상황. 이번주 후반 예정된 PCE 물가, BOJ 회의 등 매크로 이벤트와 MS, 알파벳, 테슬라 등 주요 M7 업체들의 1분기 실적 이벤트를 치러야 하기 때문.

미국 액티브 펀드들도 미국 증시의 비중을 줄이고 있는 실정. 미국 액티브 펀드 협회(NAAIM, National Association of Active Investment Managers)의 주식 익스포저를 보면, 4월 19일 기준으로 주식 비중이 62.9%를 기록. 직전주 81.9%에서 급감한 것이며 지난 10년 장기평균인 72.4%도 하회하는 수치. 1분기 랠리 이후 차익실현 욕구 및 2분기 초 현재 대내외 불확실성이 이들로 하여금 미국 증시에 대한 비중 축소 유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런 측면에서 그간 시장을 견인해왔던 대장주인 M7 주들의 주가 향방이 중요해졌다고 판단. 현재 미국 S&P500의 1분기 EPS 증가율 전망치를 보면, 38%(YoY)로 고성장이 예상되나 M7을 제외 시 그 수치는 -4%로 급감한다. S&P500의 실적은 M7의 실적 의존도가 그만큼 높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음. 결국 이들의 1분기 실적 및 주가 방향성이 전반적인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 만큼, 주 후반까지 시장은 추가적인 가격 조정까지는 아니더라도 기간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하는 것이 적절.

전일 국내 증시는 지난 금요일 미국 엔비디아 등 AI 주 급락 사태에도, 정부의 배당소득세제 개편 기대감 등에 따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호재로 저 PBR 주들이 동반 강세를 연출하면서 상승 마감(코스피 +1.4%, 코스닥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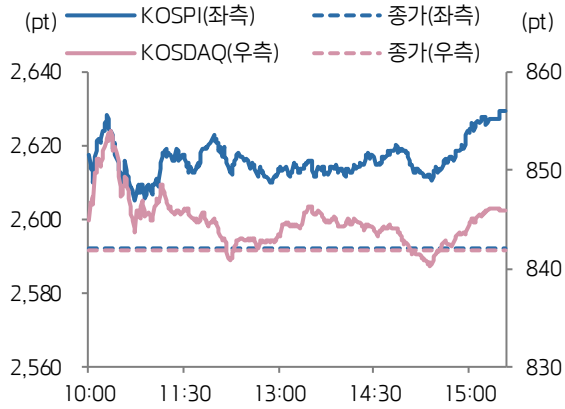
금일에는 전일 미국 엔비디아 등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1.7%) 상승, 유가 부담 완화 등으로 반도체 중심으로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나, 주 후반에 몰린 M7, SK 하이닉스, 현대차 등 국내외 주요 기업 실적 이벤트를 둘러싼 경계심리가 지수 상단을 제한할 것으로 판단.

한편, 수급 측면에서 국내 시장 참여자들을 신경 쓰이게 만드는 것은 외국인의 순매도 전환이 해당. 지난주 이후 현재까지 외국인은 코스피를 약 1.1조원 순매도에 나섰으며, 대외 불확실성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들 입장에서는 순매도 작업을 지속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할 수 있을 것.

하지만 실제 수급을 보면 우려와 현실은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음. 21일 기준 외국인 코스피 순매수 금액은 약 18조원으로 역대 3번째 순위를 기록(2009년 +30조원, 2010년 +21조원). 불과 4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전체 순매수 금액(11조원) 이상으로 순매수를 한데에 따른 템포 조절의 성격이지 본격 셀 코리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 글로벌 주식형 펀드의 수급을 봐도 별반 다르지 않음. 4월 이후 3주간에 걸쳐 북미(-135억달러), 유럽(-40억달러), 신흥국(-1억달러) 등 주요 대륙 전반에 걸쳐 자금 유출입이 일어났음. 하지만 아시아(+27억) 지역에 한정해서는 자금 유입세가 이어진 가운데, 아시아 내에서 중 한국(+21억달러)을 제외한 중국(-11억달러), 인도(-5억달러), 대만(-45억달러) 등 거의 대부분 모든 지역에서 자금 유출입이 일어났다는 점이 눈에 띄는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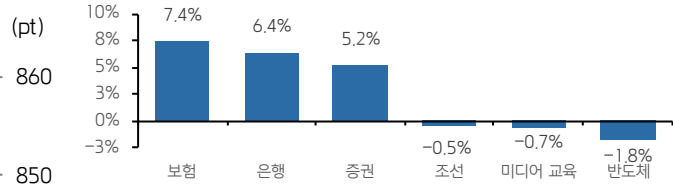
결론적으로 3고장세 및 미국 M7 주가 향방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잔존하나, 이들 M7을 중심으로 한 미국 증시의 추가 조정 압력은 크지 않을 전망. 한국 증시의 경우, 외국인 순매수 기조 및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연속성도 유효하고, 반도체, 자동차 중심의 이익 모멘텀(4월 20일 수출 +11%, 반도체 +43%, 자동차 +13%)도 훼손되지 않는 등 코스피의 하방 경직성은 여타 증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견조할 것으로 전망.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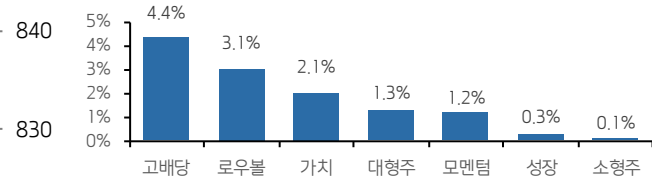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